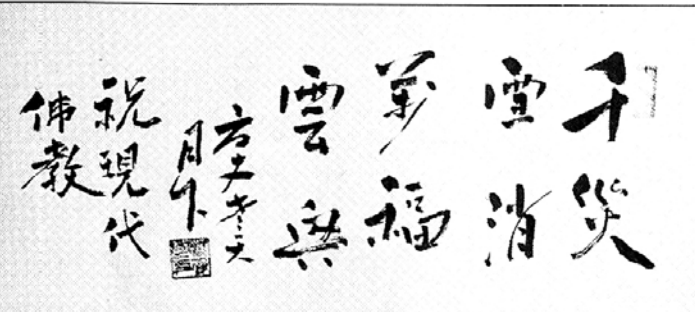


새아침 수행한담

자기 직분에 충실해야



◇월하스님의 신년회호 '千災雲消 萬福雲興(천가지 재앙은 눈녹듯 사라지고 만가지 복이 구름일듯 일어난다)'

살아가게 된 것이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나의 출가는 현상계로 쫓아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지만 참으로 고마운 인연입니다. 내 고향은 부여인데 그곳에 가면 고관사라는 절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고관사에 종종 가곤 했는데 갈때마다 공언히 그곳이 좋아보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님네들을 보면 그때 생각으로 '사람은 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이런곳에서 사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네들의 생활이 꼭 고상해 보이는 데다가 '아무나 이런데 와서 사는것도 아니고 어째서 이런데 와서 사는가' 하는 의문이 항상 들었어요. 그러다 18세 때 '나도 절에 가서 절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한달가량 절에 가 있다고 한것이 그냥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가르침은 실천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요. 언행 하나 하나에 마음을 쏟아야 가능한 일이지요. 그대도 그저 그 가르침에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어 부족한 면이 있으면 더욱 분발하려고 애를 썼지요. 요즘은 자유로워진 시대분위기를 타고 수행풍토가 많이 무너졌지만 그때는 철저했거든요. 요사이 출가한 이들을 보면 수행력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영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행은 개인의 몫인데 일일이 나서서 간섭할수 없는 것이고 개인 각자가 부처님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거든요. 출가자들이 각성을 하고 수행에 전념하지 않으면 불교의 맥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불교지 다른 말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보살계받은

서로 옳고 잘났다 주장하는데서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나타나지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것 해결

에 당면한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서로 옳고 잘났다 주장하는 가운데서 싸움이 일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세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모두 자신이 잘났다 내세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안됩니다. 우리는 자신부터 한 번 더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는지, 입으로만 불법을 말하는지 아닌지 살피는 가운데서 자신을 내세우는 마음이나 다른 이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언행을 해도 자신을 낮추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흔히 아상을 없애야 한다고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상을 여의는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도 출가자나 재가자를 막론하고 오히려 아상만 높이고 있는 듯 합니다.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만 아니라 나라고 내세우는 생각조차 없애는게 진정한 하심(下心)입니다.

를 원하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먼 것입니다. 나는 내 거처 주변의 잡다한 일들은 가능한 내 손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무슨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남의 손이나 생각을 빌려서 내가 하는 것보다 열번은 더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움직일 수 있을때까지는 움직이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다가 가야죠. 백가지 말보다 한가지의 실천을 생활속에서 이루어 내도록 노력하는 불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낙엽귀근(落葉歸根)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서 떨어진 잎은 반드시 나무뿌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이처럼 자신이 나온 근본처에 대한 간절한 귀의가 자연의 이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철저히 자기 근본처에 귀의하고자 하는 수행을 핵심으로 삼는 것이 불교입니다. 세상살이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부모 등을 중히 여기며 살아가지만 출가자는 그러한 현실적인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본래 밝아있는 성품을 찾고자 매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가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성품을 밝히는 일에 간절한 열념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복을 짓는 시주와 불사금 동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시주했으니 복받겠지' 하는 그 교만한 맘으로 자칫 오히려 성품을 밝히는 일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복의 인을 지으면 복의 과를 받게 되므로 자신의 불성을 밝히는 노력이 흐려져 버리기가 쉽지요. 편안히 살고 많은 사람들이 떠날 줄 모르는 편안하고 엄밀한 생각조차 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선도 악도 짓지말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인연으로 과를 받아 수행하는 데는 방해가 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복을 짓고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육체가 살아있는한 지극히 엄밀하고 참신해야 합니다. 불제자는 마땅히 불성을 밝히는 노력으로 자신의 성품자리를 찾고야 말겠다는 대발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삼속에서의 실천을 통해 마침내 부처님과 같이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길을 묵묵히 가야 할 것입니다

백가지 말보다 한가지 실천 중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받아 들이세요"

절에 온 이후 속가 부모님께 세 번이나 불잡혀 갔었습니다. 잡혀도 하룻밤 자고 도망치듯 나오니까 결국 부모님은 그렇게 세 번을 하시다가 포기하시더군요. 그 이후 부모님께서 차례대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는 한편으로 '이제는 잡으려 하고 출어도 없구나' 하는 허전한 맘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한가지 걱정을 잊어버린 듯 하더군요. 출가해서는 은사이신 구하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도반들과 함께 무조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은사스님의 말씀이라면 합당하다 하더라도 이유는 꼭 들었어야요. 스님의 말씀이 곧 부처님의 말씀이다 믿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구하스님께서는 항상 '부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대중에게 지탄받지 않게

이들은 보살계의 정신에 입각해서 생활하고 부처님말씀에 가깝게 행동하려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불교를 살릴 수 있고 수행풍토를 되살릴 수 있는 절경입니다. 또한 종단차원에서 행정 포교 교육등 각 방면으로 부처님 말씀에 저촉안되게 해서 수행력을 높여야 해요. 그래야 다른 대중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효과도 극대화 됩니다. 그 실천력만이 허물어진 수행풍토를 다잡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수 있게 할 것입니다. 종단자체의 수행풍토가 허물어져 있다면 다 이상 할일이 없는 것이죠. 수행풍토가 허물어지지 저마다 자신들이 잘났다고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려 들지 않고 자신을 편한 대로 갖다 붙이려 드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양화된 시대

나는 요즘도 대중공양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걸여 다닐 수 있는 한은 대중들과 함께 공양할것입니다. 나라고 특별할 것도 없고 혼자 따로 상을 받는 것은 표본도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주지만 되어도 독상을 받고 다른 상보다 잘 차려먹고 자기 생일이라고 신도들이 해주는 특별상을 받고 하는데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생일의 공덕은 부모님의 몫이지 자신의 몫이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러질 못할것입니다. 나도 생일이면 밑에 권속들이 생일이다 해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서 피해나던 하다가 이제는 그것마저 번거로와 그러저러 지내기는 하지만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나칠 정도로 대접받기

정리=천미희 기자

나와 경전



숫타니파타



홍 사 성 불교TV 편집제작국장

《숫타니파타》는 한역 불경에는 없는 남전대장경 소부에 들어있는 경전이다. 숫타(sutta)는 팔리어로 경, 니파타(nipata)는 집합이라는 뜻이므로 굳이 한문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경집(經集)'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숫타니파타》에는 작은 제목의 경이 70개가 들어 있으며 이 경들은 사품(蛇品), 소품(小品), 대품(大品), 의품(義品), 피안도품(彼岸道品) 등 5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경전의 형식은 대체로 운문으로 되어 있는데 70개의 경은 모두 1149수의 시로 구성돼 있어서 읽기가 아주 쉽고 편하다. 경전의 주된 내용은 수행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가 중심이지만 중요한 교리문제에 대해 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들어져 온 입맛으로는 좀 심겁게 느껴졌으나 읽을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었다. 나는 그해 겨울내내 밑줄을 쳐가며 이 경전을 읽었다. 그후 나는 이 경전을 늘 책상위에 올려놓고 시간남때마다 펼쳐보고 있다. 책을 꺼내놓고 아무데나 펼치면 금방 이런 가르침이 눈에 들어온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안한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세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일을 풀이하며, 생활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관이 안정되고 총명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다른 식자들로부터 비난을 살만한 행동을 결코 해서서 안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태평하라. 안락하라.'(제1장 8절, 9절)

수행자의 마음자세 다룬 운문 1149수 "세상사 힘들때 펼치면 위안 얻어요"

라 하지메(中村元)는 "불교경전의 초기원형을 간직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경전 편찬자들의 주관적 의지가 최소한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을 짐작하기에 최적의 경전이라는 평가가. 그러나 이 경이 갖는 가장 뛰어난 장점은 아무래도 내용의 소박함과 평이성일 것이다. 대개의 경전이 딱딱한 교리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비해 이 경은 불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에 관한 설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을 읽다보면 마치 부처님이 지금 우리곁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하고, 저런 일은 저렇게 해야 한다고 자상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나의 경우 많은 경전은 읽지 못했지만 《숫타니파타》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경전은 별로 보지 못했다. 이 경전이 최초로 출간된 것은 1969년이었다. 법정스님의 번역으로 《지혜와 자비의 말씀》이라는 표제를 받고 역경원에서 간행됐다. 내가 이 경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생 때인 1971년 작고한 서경수 교수께서 필독서로 추천해 준 인연으로서다. 대중경전에 길

자비) '순위 사람을 공경하고 시기하지 말며, 스승을 만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으라. 고집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로 때를 맞추어 스승을 찾아가라...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기뻐하며, 진리에 머무르고 진리를 비방하는 말로 입에 담지 말라. 훌륭하게 설했던 진리에 따라 생활하라.'(제2장 8절, 9절, 10절) '마음으로부터 화를 내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라도 남을 비방하는 일이 있다. 비방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성인은 그것에 동하지 않는다. 성인은 무슨 일이나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는다.'(제4장 3절, 분노)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않을 때, 화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리고 마음이 산란해져 짜증이 날 때, 누구든 펼치면 금방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경이다. 경전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었는가. 만약 불자들이 이 경을 한권씩 갖춰 놓고 틈틈히 읽는다면 그 종교생활은 더욱 진실해 질 수 있을 것이다.

- 머릿글 - 하늘이 풀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강물은 성난 짐승처럼 포효하며 제방을 뚫고 농토를 짓밟았다. 강둑이 무너지는 소리는 세상이 한꺼번에 함몰되는 듯한 극한이고 절망이었다. 무겁고 처참했다. 초가삼간 누옥마저 물에 잠겨버리고 등골이 휘도록 땀을 흘려 베어놓은 들판의 보릿단도 수마에 휩쓸려 가고, 더러는 그것들이 날알을 달고 애물처럼 마을로 떠밀려 왔다. 그나마 물에 젖어 연방 싸이 나는 보리를 건져다 무쇠솥 뚜껑에 말리는 참상은 60년대 가난한 보리 흉년의 현주소였다. 마치 전쟁 같았다. 생존과의 투쟁, 어린 새가슴은 상처로 얼룩졌고 그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내 최초의 끈질긴 질문이기도 했다. 무엇 때문에 이렇듯 모질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까닭이 궁급했다. 아예 세상이 열리지 않았다면, 천지(天地)간이 고요 속에 평화를 누릴 터인데 고태(苦海) 같은 세상사를 지은 신(神)이 원망스러웠다. 대관절 삶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떤 의도에서 났다가 돌아가는 곳은 어드맨지, 나는 또 누군지, 끝없이 치솟는 의문의 불길로 가슴을 치다가도 제 풀에 지쳐 '내가 나지, 뭐진 뭐겠나' 자답해 보지만, 금세 잠잠했다. 넘치는 불길은 다른 어딘가로 분출하기 마련이다. 자신과 세상을 향해 곧추 서있던 미숙한 마음으로 한때는 막시즘에 심취되기도 했다. 다행히 그것을 계기로 불법(佛法)을 만났고 곧 '나'가 존재함으로써 세상이 있고, 천지간에 오직 하나뿐인 나 자신이 바로 대우주와 동격을 이루고 있음을 비로소 느꼈다. 난생 처음의 희열이었다. 이 우주보다 더 소중한 자신이 천지의 태동과 함께 존재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어쩌다 서럽게 생겨난 목숨으로 오인한 것이 가장 큰 불행이었던 셈이다. '나'라는 존재는 이 우주

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공존함이 분명하며 그 역겹의 시공속에서 우리가 무시로 짓는 악업이나 선업들이 먼지만한 오차도 없이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현세의 모호한 질서라고 보면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제 보다 성숙한 과학이 필요하다. 기하학에서 프랙탈 도형은 약간의 조작으로 매우 다양한 현상이 연출된다 아무리 빈약한 생김새도 전체의 구조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보일 듯 말 듯한 지극히 경미한 오차가 반복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나비효과'이다. 오늘 중로 거리에 날던 나비 한 마리가 일으킨 바람이 내일 뉴욕에 폭풍우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주 질서의 순환성을 의미하겠으나, 모든 순환의 고리는 '인연'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음은 '나비효과'의 가공할 무서움을 말하는 것이며, '업'과 '윤회'사상도 즉 '나비효과'의 순환현상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天祐神助로 불법을 만난 것은 생(生)의 축복이었다. 선근(善根)이 부족해 중도 하차한 것이 애석하나, 어느 집단 어느 땅이나 구가하는 바의 가치를 함축한 실(實)이 있음을 확인하며 또 체험해 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세기적 국운의 개벽기를 떨리도록 기대하면서 우리 민족의 잠재된 기상과 정신을 일깨우는데 미련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뜨거울 뿐이다. 나비의 날개짓처럼 새로운 정신문명을 발아시켜 어려움에 처한 인류를 머지않아 이 땅의 우리가 구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의 자긍심과 의지는 곧 '폭풍의 눈'으로 발전할 수 있음...

'바람을 일으키는 나비의 날개짓'의 저자 김병관 생활체육 바드민턴 서울시연합 회장 TEL : 02)3428-3668 FAX : 3426-3469



도서출판 혜진서관 TEL : 332-0672 FAX : 335-0698

김병관의 삶과 우주의 이야기 바람을 일으키는 나비의 날개짓